

ZOOM
-IN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2022년 이후 월분배 수요 확대, 해외 대표지수 투자 증가, 운용사 간 상품 공급 경쟁을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커버드콜 ETF는 옵션 기반 인컴형 ETP의 핵심 상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후 유럽에서도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보유와 콜옵션 매도를 결합해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구조이나,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분배금의 재원 역시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초자산, 섹터, 위클리 옵션, 목표 프리미엄형, 옵션 매도비중 조절형 등으로 상품 설계가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가 표시 분배율, 분배 재원, 총투자수익률, 옵션 운용 조건을 일관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중요하다.

□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2022년 이후 순자산과 펀드 수가 동시에 빠르게 증가했으며, 월분배 수요와 해외지수 투자 확대, 운용사 간 상품 공급 경쟁이 성장 배경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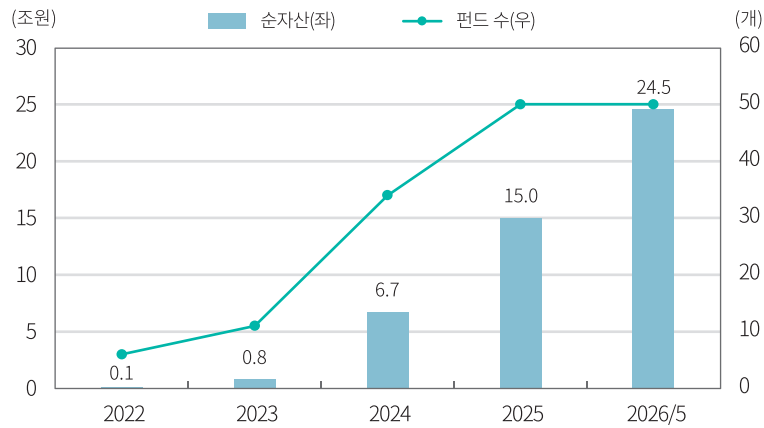
- 국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2022년말 1,223억원에서 2026년 5월말 24조 5,49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펀드 수는 6개에서 50개로 증가(〈그림 1〉 참조)
-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첫째, 2024년 이후 월분배형 ETF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기적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커버드콜 ETF가 월분배형 ETF 시장의 핵심 상품군으로 부상
- 둘째, S&P 500, Nasdaq 100 등 해외 대표지수에 대한 국내 투자 수요가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의 주요 기초자산 선택으로 연결되면서 상품 공급도 단기간에 확대
- 셋째, 운용사 간 상품 공급 경쟁이 확대되면서 커버드콜 ETF의 상품 설계도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 측면에서 세분화
 - 기초자산 측면에서는 S&P 500, Nasdaq 100 등 해외 대표지수 중심에서 KOSPI200, KOSDAQ150¹⁾, 국내 반도체²⁾ 등 국내 주가지수와 섹터를 활용한 상품으로 확대

1) 서울경제, 2026. 5. 13, 키움운용,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커버드콜 ETF' 출시한다

2) 아시아경제, 2026. 5. 11, 반도체 투자에 배당까지...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

- 옵션 전략 측면에서는 월간 옵션을 활용한 전통적 커버드콜 구조뿐 아니라 위클리 옵션³⁾, 목표 프리미엄형, 옵션 매도비중 조절형 등으로 운용 방식이 다양화⁴⁾

〈그림 1〉 국내 커버드콜 ETF 순자산 및 펀드 수 추이



자료: KG제로인

□ 글로벌 시장에서도 커버드콜 ETF는 옵션 기반 인컴형 ETP 성장의 중심에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후 유럽에서도 관련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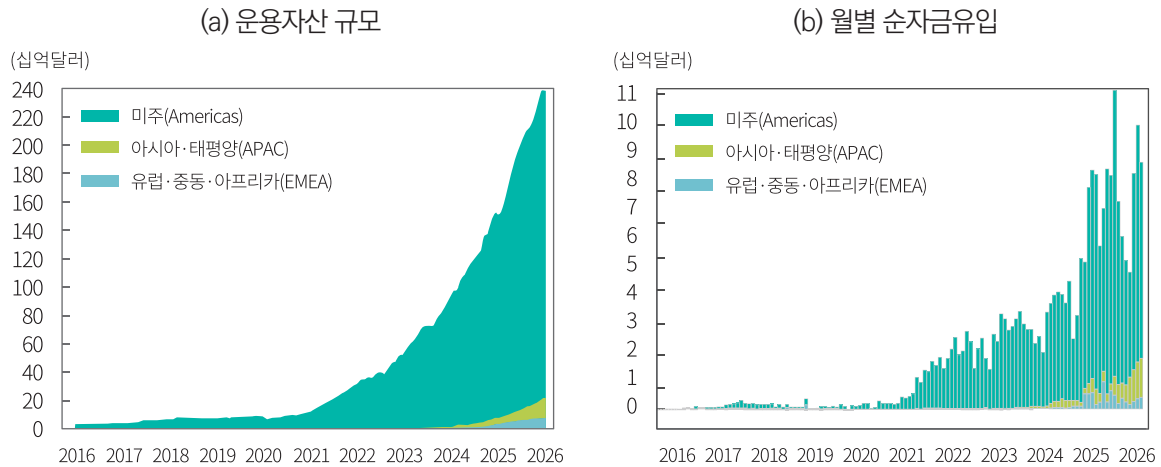
- ETF Stream & Nasdaq(2026)⁵⁾에 따르면 글로벌 Enhanced Income ETP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말 70억달러에서 2026년 2월말 2,410억달러로 증가
 - Enhanced Income ETP는 커버드콜을 포함한 옵션 기반 인컴형 상품군이며, 이 중 커버드콜 ETF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동 보고서에서 커버드콜 ETF의 운용자산 규모는 2026년 2월말 약 2,270억달러로 나타나, Enhanced Income ETP의 대부분이 커버드콜 ETF로 구성됨을 확인
- 미국이 여전히 지배적인 성장 동력인 반면 유럽에서도 EMEA Enhanced Income ETP의 운용자산 규모가 2025년 2월말 약 30억달러에서 2026년 2월 약 7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짐
 - 유럽에 상장된 커버드콜 및 프리미엄 인컴 ETF에는 2024년 1월 이후 57억달러의 순신규자금이 유입

3) 삼성자산운용 KODEX, KODEX 200 Target Weekly Covered Call ETF 상품 페이지
<https://www.samsungfund.com/etf/product/view.do?id=2ETFP4>

4) 삼성자산운용 KODEX 블로그, 2026. 5. 7, 반도체는 역시 삼성 KODEX!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5) ETF Stream & Nasdaq, 2026, *The Next Income Frontier: Covered Call ETFs*

〈그림 2〉 거래소 지역별 Enhanced Income ET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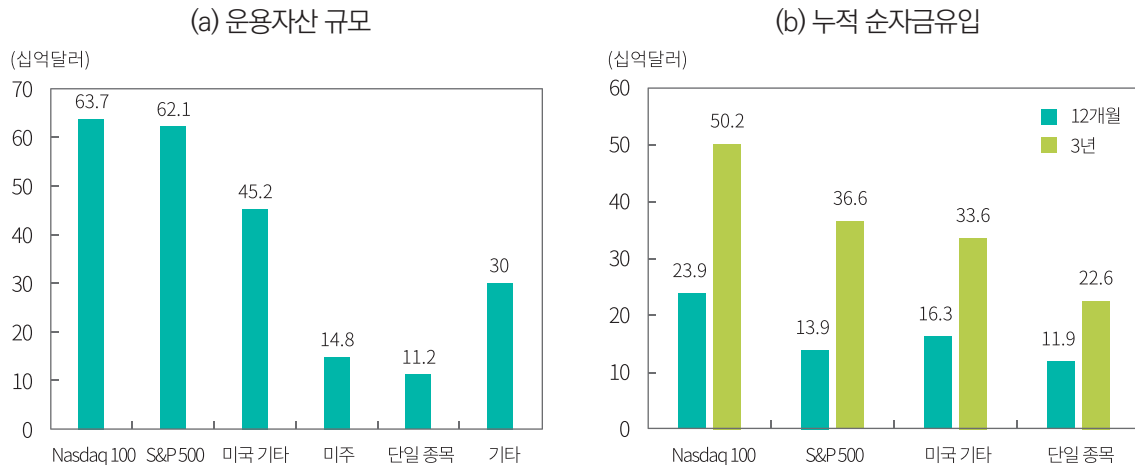


□ 글로벌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은 Nasdaq 100과 S&P 500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 미국 주식·지수, 단일종목, 미국 외 지역지수 및 비주식 자산군으로 점차 확대

- Nasdaq 100 연계 커버드콜 ETF의 운용자산 규모는 2026년 2월 기준 약 637억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S&P 500 기반 상품도 약 621억달러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
 - 최근 자금유입 측면에서도 Nasdaq 100 기반 상품이 두드러지며, 최근 12개월 및 3년 누적 순자금유입은 각각 약 239억달러, 502억달러로 S&P 500 기반 상품의 약 139억달러, 366억달러를 상회
- Nasdaq 100 기반 상품은 높은 변동성과 성장주 중심의 기초자산 특성으로 옵션 프리미엄 창출 여지가 크지만, 기초지수 상승률이 높을수록 콜옵션 매도에 따른 상승참여 제한과 초과수익 포기 기회비용도 확대될 수 있음
- Nasdaq 100이나 S&P 500이 아닌 미국 주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과 단일종목 기반 커버드콜 ETF도 각각 452억달러, 112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기반 옵션 인컴 ETF, ODTE 옵션을 활용해 주간 분배를 추구하는 ETF, 변동성 수준에 따라 콜옵션 매도비중을 조절하는 동적 옵션 전략 등으로 상품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는 양상
 - 이러한 상품은 높은 분배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기초자산 집중도, 옵션 만기와 롤오버 빈도, 파생상품 비용, 상승참여 제한 등이 결합되므로 전통적인 지수형 커버드콜 ETF와는 다른 손익 구조와 위험 특성을 가질 수 있음

- 기초자산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품별 변동성, 옵션시장 유동성, 분배 재원의 지속가능성 및 손익 구조 차이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중요해짐

〈그림 3〉 기초자산별 글로벌 커버드콜 ETF 현황 (2026년 2월말)



주 : 1) '미국 기타'는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Nasdaq 100이나 S&P 500이 아닌 미국 주식·지수 기반 전략을 묶은 분류

2) '미주'는 미국을 제외한 미주 지역 기초자산으로 추정

3) '기타'에는 APAC, 글로벌, 원자재, 암호화폐, 유럽이 포함됨

자료: ETF Stream & Nasdaq(2026)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보유와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상품으로, 손익 구조와 분배금 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 프리미엄, 표시 분배율, 총투자수익률 및 정보 제공 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

- 커버드콜 ETF는 주식 포트폴리오 또는 지수 추종 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초자산 또는 관련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
-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에 머물면 수취한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완충하지만, 행사가격을 초과해 상승할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라 기초자산 상승분에 대한 참여가 제한
- 다만 이러한 상승참여 제한은 개별 옵션 계약의 만기 손익에 관한 것으로, 만기 정산 이후에는 당시 기초자산 가격과 시장 변동성 등을 반영해 새로운 옵션 매도 조건으로 롤오버가 이루어짐
-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은 개별 옵션 매도 시점에 1회 수취되지만, ETF는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옵션을 다시 매도해 분배 재원을 반복적으로 확보
- 월분배금은 옵션 프리미엄 외에도 배당, 실현손익, 자본 환급을 포함할 수 있어, 표시 분배율을 총투자수익률이나 순수 투자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자본 환급은 ETF 분배금 중 펀드의 소득·실현이익 등을 초과해 지급되어 자본 반환으로 분류되는 부분⁶⁾

6) Roundhill XDTE 공식 상품 페이지(<https://www.roundhillinvestments.com/etf/xdte/>)

- 미국 상장 ETF는 상품 페이지 및 투자광고 등을 통해 분배율, 수익률, 비용, 포트폴리오, 투자 위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urrent yield 등 수익률 지표를 표시하는 경우 SEC Rule 482 및 Form N-1A에 따른 성과 산출·표시 기준이 적용
 - 비머니마켓펀드가 current yield를 표시할 경우 Form N-1A의 30일 또는 1개월 기준 산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30-Day SEC Yield는 최근 분배금 기준의 단순 분배율과 구분되는 표준화된 지표로 활용⁷⁾
- 국내에서도 ETF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자산구성내역, 투자광고 규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운용사 상품 페이지를 통해 기초지수, 운용방법, 분배금, 총투자수익률 등이 제공되고 있음
- 다만 국내 커버드콜 ETF의 분배 관련 정보는 상품에 따라 연평균 NAV 대비 목표 분배율⁸⁾, 목표 프리미엄⁹⁾, 목표 분배율 지수¹⁰⁾, 월별 목표 프리미엄 지수¹¹⁾ 등으로 제시되고 있어, 투자자가 분배 수준과 산출 기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배당, 옵션 프리미엄, 매매손익, 자본 환급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될 수 있어 표시 분배율만으로 실제 투자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커버드콜 ETF 시장 확대에 따라 분배율 산식, 분배 자원, 총투자수익률, 옵션 매도비중·행사가격·만기·롤오버 방식 등을 상품 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보완할 필요¹²⁾

7) 미국 BlackRock의 iShares S&P 500 BuyWrite ETF는 Distribution Rate, 30 Day SEC Yield, NAV Total Return을 별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Global X QYLD는 최근 12개월 분배율 산정에 income, capital gains, return of capital distributions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
www.blackrock.com/us/individual/products/336267/ishares-s-p-500-buywrite-etf/

8)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연간 지급된 분배금의 합이 연평균 NAV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분배수익률을 추구”한다고 설명, www.aceetf.co.kr/fund/K55101E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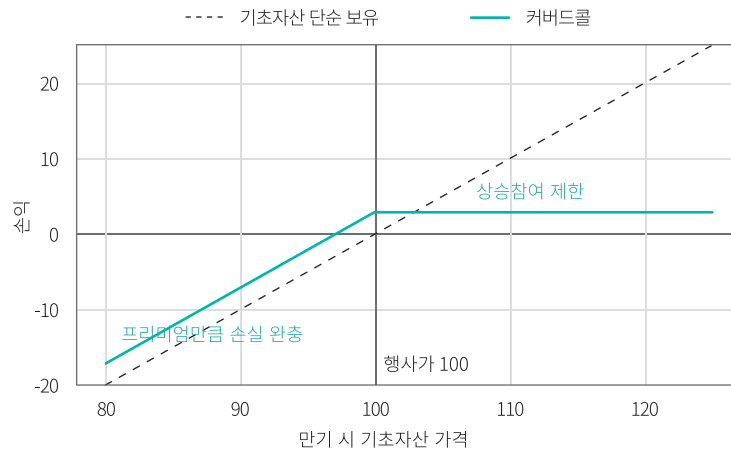
9)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연 15%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을 추구”한다고 설명
www.soletf.com/ko/fund/etf/211107?tabIndex=1

10)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기초지수가 “연간 9%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지수”라고 설명
www.samsungfund.com/etf/product/view.do?id=2ETFV1

11) SOL 미국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액티브: 비교지수로 “KEDI 미국퀄리티 500+월1%프리미엄지수”를 제시하고, 옵션 프리미엄 및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는 ETF라고 설명, <https://www.soletf.com/ko/fund/etf/2111064?tabIndex=1>

12) 서울경제, 2026. 5. 11, 커버드콜 ETF 몸집 커지지만...제각각 분배율 계산에 혼란

〈그림 4〉 커버드콜 ETF 손익 구조 예시



주: 최초 기초자산 가격 100, 콜옵션 행사가격 100, 옵션 프리미엄 수취를 가정한 만기 손익 구조 예시

□ 상품 설계 방식에 따라 분배율, 상승참여, 손실 완충 효과가 달라지므로 커버드콜 ETF 간 성과 차이가 확대될 수 있음

- 행사가격을 현재 가격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프리미엄은 커지지만 상승참여 여지는 줄어들고, 현재 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외가격 콜옵션을 활용하면 프리미엄은 줄어드는 대신 기초자산 상승참여 여지는 커짐
- 옵션 매도비중을 낮춘 부분 커버드콜은 분배 재원을 줄이는 대신 상승장 기회비용을 완화할 수 있으며¹³⁾, 목표 프리미엄형 상품은 일정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확보를 위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옵션 매도비중이나 행사가격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은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기초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함¹⁴⁾
- 동적 옵션 전략은 옵션 내재변동성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콜옵션 매도 여부를 조정함으로써, 옵션 프리미엄 확보와 기초자산 상승참여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¹⁵⁾

13) HANetf, 2025, *Different approaches to covered call ETFs*.

<https://hanetf.com/news-insights/different-approaches-to-covered-call-etfs>

14) MoneyWeek, 2026. 5. 4, How to use premium-income ETFs to turn volatility into profits.

15) BusinessKorea, 2024. 10. 16, KRX to Unveil New KOSPI 200 Dynamic Weekly Covered Call Index with Bloomberg

〈표 1〉 커버드콜 ETF의 주요 이점 및 유의점

구분	주요 이점	유의점
현금흐름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일반 배당 ETF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월분배를 제시할 수 있음	분배금이 배당 또는 순수 운용수익인지, 자본 환급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수익 구조	횡보장 또는 완만한 상승장에서 프리미엄 수익이 성과에 기여	강한 상승장에서는 행사가격 초과 상승분을 포기해 일반 주식 ETF 대비 성과 열위 가능
위험 완충	수취한 프리미엄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하락 손실을 완화	기초자산 급락 시 손실을 완전히 방어하는 보호형 상품은 아니므로 손실 가능성 존재
상품 비교	기초자산과 옵션 설계에 따라 다양한 인컴 전략 구현 가능	옵션 매도비중, 행사가격, 롤오버 주기 등이 다르면 동일한 분배율도 다른 위험을 내포

-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빠른 양적 성장 이후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이 세분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성과를 일관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중요
- 운용사는 기초자산, 옵션 매도비중, 행사가격 설정 방식, 만기, 롤오버 주기, 분배 재원 등을 보다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투자성과는 월분배금이나 표시 분배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준가격 변동을 포함한 총투자수익률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배율 산식과 분배 재원도 함께 확인해야 함
 - 국내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은 직전 월분배금 연율화, 과거 12개월 분배금, 목표 분배율 등 상품별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분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품명이나 월 분배율보다 기초자산, 옵션 운용 방식, 분배 재원, 총투자수익률, 비용, 세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접근이 요구됨

선임연구원 심수연